

항공영화

‘청연’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서 죽는 두려운 물건으로만 생각하오.

그러나 나는 괴여히 비행가로서 성공을 하야

남자에게 지지 않는 활동을 하겟소.

- 박경원 1925년 7월 5일 동아일보 인터뷰 중에서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편집실 |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항공영화의 숫자는 정말 손으로 꼽을 정도이다. 왜냐하면 값비싼 항공기가 출연해야만 하는 장르의 특성상 이것이 자연스럽게 제작비 상승으로 연결되고, 그에 비해 항공이라는 어려운 장르에 관심을 갖는 관객은 대체로 소수이기 때문에 비행기의 ‘비’ 자도 모르는 관객조차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대단히 우수한 스토리와 기획력이 없으면 투입한 자금을 여간해선 회수하기 힘들다. 그래서 영화기획자들은 우리가 좋아하는 항공영화 대신 항상 뻔하지만 비교적 흥행이 보장되는 멜로 영화, 조폭 영화, 코미디 영화 같은 장르를 선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2005년은 사정이 좀 다르다. 연초의 ‘에비에이터’를 시작으로 여름에는 ‘스텔스’, 그리고 연말에는 이 기사의 주인공인 국산 항공영화 ‘청연’이 준비되어 있다.

‘청연’은 일제시대를 살았던, 한국인 최초의 여성조종사 중 한 명인 박경원씨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이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크게 늘어난 요즘도 여성조종사를 보기 어려운데, 일제시대에 여성조종사가 있었다니! 믿을 수 있는가? 하지만 ‘신데렐라 콤플렉스’나 ‘공주병’ 등의 조어가 난무하는 현대에 비해 당시의 여성들은 어떤 의미에서 훨씬 더 자주적이고 진취적이었다. 박경원의 다치가와 비행학교 재학 시절 33명의 재학생 중에서 여성이 6명이나 있었다는 것은 요즘의 기준으로 봐도 정말 대단한 일이다.

한국 최초의 여성비행사, 그 불꽃 같은 인생

영화의 주인공 박경원(1901-1933)은 대구 출생으로 중학교 중퇴의 변변찮은 학력을 가진 6남매의 막내딸이었지만, 1922년 12월 10일 용산 연병장에서 벌어진 한국 최초의 조종사 중 한 명인 안창



박경원의 실제 모습

남의 비행을 보고 조종사가 되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품게 된다.

일본으로 건너가 1925년 다치가와 비행학교에 유일한 조선인 학생으로 입학한 그녀는 “여자는 엉덩이가 커서 조종은 무리” “뱃 백근이나 되는 쇧덩이를 여자가 어떻게 조종하겠어”라는 성차별적인 조롱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나갔다. 조종사가 되고 싶어하던 그녀의 뜻을 그토록 만류하던 부모님은 그녀에게 돈을 전혀 부쳐주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밤낮으로 간호사 일과 택시 운전을 하며 비행학교의 학비를 벌어야 했다. 참고로 그녀의 학교 동창 중에는 당대 그녀와 함께 조선 여성조종사의 쌍벽을 이루다가 훗날 무용가로 변신하고, 해방 후 남한의 공군장교가 되는 여성조종사 이정희(1910-? 한국전쟁중 납북 실종)도 있었다.

이런 고학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1926년 12월 28일 비행학교를 졸업하고 3등비행사 면허를 취득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조종사가 된다. 그리고 2년 후인 1928년 7월 30일에는 2등비행사 면허를 취득한다.

1930년 당시 일본의 민간 조종사는 불과 10여명... 박경원은 그중 꾸준히 활동하는 유일한 조선인 여성으로서 입지를 굳혀갔고 결국에는 당시 항공기의 항속력으로는 거의 한계에 가깝다고 판단되던 일반비행, 즉 일본에서 만주로 날아가는 비행에 도전장을 던졌다.

하지만 박경원의 비행을 돕던 주변 사람들은 이 비행계획을 반대했다. 조선 최초 여성조종사인데 조선 상공을 들리지 않고 곧장 만주로 간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박경원은 조선을 거쳐 만주로 가는 것으로 비행계획을 수정, 1933년 8월 7일 10시 35분 미국 살무손사에서 제작한 복엽기 ‘청연(靑燕: 파란 제비)’호를 타고 일본의 히네다 공항을 이륙, 9년만에 고국으로 떠났다.

그러나 이 당찬 여성의 운도 결국 거기서 끝나고 말았다. 박경원은 이륙한지 채 한 시간도 못되어 짙은 안개로 인한 저시정 때문에 근처의 하꼬네 산에 충돌, 즉사하고 말았던 것이다. 하늘에 모든 것을 걸었던 서른 두 해 인생의 드라마틱한 최후였다.

스크린에서 부활한 창공의 여인

사실 박경원이 한국 최초의 여성조종사인지에 대해서는 다소의 논란이 있다. 중국 공군에 입대하여 박경원보다 이른 1925년에 조종사 면장을 받았던 권기옥을 한국 최초의 여성조종사로 보는 견해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기옥은 당시 중국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국적상의 ‘한국인’으로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굳이 누가 한국 최초인지를 무리하게 따지기 보다는 그 옛날 처음으로 하늘을 날았던 한국 여성 중 하나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주인공인 박경원 역으로는 <싱글즈>, <소름> 등의 영화에서 호연한 영화배우 장진영이 출연. 큰 키에 남성적인 외모가 박경원의 실제 모습과 비슷한 분위기를 풍긴다는 것이 중평이다. 그 외에 비행학교 여성동기로 친한파 일본인 배우 유민(기베 역), 한지민(이정희 역)이 나오고, 남자배우로는 나가무라 토오루, 김주혁 등의 실력과 배우들이 나온다.



항공영화라면 비행기의 비행장면만 출창 나올거라는 선입견과는 달리 이 영화는 한국, 중국, 일본의 관련 유적지를 돌아다니며 현지촬영, 대단히 실감나는 ‘그 시대’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항공영화답게 실감나는 비행장면 촬영에도 큰 비중을 두어, 미국 LA의 엘 미라지와 빅 스카이렌치에서 실제 비행 모습을 촬영했다. 배우가 조종석에 앉은 모습을 촬영할때도 항공기의 목업을 만들어 찍고 CG로 마무리했다.

막대한 제작비 탓에 한 때 제작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던 우리의 항공영화 ‘청연’. 많은 산고와 정성 끝에 완성된 영화이니 그만큼 더욱 세련된 완성도를 기대해 보자. ☺

(감독 윤종찬, 제작 코리아픽처스, 올해 12월 개봉예정)

